



## 21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제103회기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춘식  
서 기 정경섭

### 1. 조직

- 위원장 : 김춘식
- 서 기 : 정경섭
- 회 계 : 김석태
- 위 원 : 김충현, 김태화

### 2. 회의

#### 1) 제1차 위원회의

☞ 일 시 : 2018. 11. 5(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임원선정을 아래와 같이 하다.

위원장 : 김춘식 목사, 서 기 : 정경섭 목사, 회 계 : 김석태 장로

- ② 목회대학원 운영 및 재정에 대하여 현재 목회대학원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담당자 전성민 과장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차기 모임에 의논기로 한다.

#### 2) 제2차 위원회의

☞ 일 시 : 2018. 12. 10(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이충선 목사, 신정옥 간사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다.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소명 자료 제출 요망)

가. 제출일자 : 2019년 1월 14일(월) 오후 5시까지

나. 제 출 처 : 총회 기획행정국 본 위원회 담당자 전성민 과장

- ②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를 아래와 같이 출석 요청하기로 하다.

- ③ 현재 목회대학원에 2013년~2014년까지의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다.

가. 요청일자 : 2019년 2월 11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 ④ 차기 회의는 2019년 2월 18일(월)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 ⑤ 1차 접수된 자료(2011~2012년)에 대해 회계 장부를 복사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하되, 유출시에는 유출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 3) 제3차 위원회의

☞ 일 시 : 2019. 2. 18(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이충선 목사, 하귀호 목사, 신정옥 간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다.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소명 자료 요청)
  - 가. 제출일자 : 2019년 3월 28일까지
  - 나. 제출처 : 총회 기획행정국 전성민 과장
- ② 출석요구를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로 하다.
 

단, 출석시에 본인의 소명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 가. 이충선 목사 : 2019년 4월 4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 나. 하귀호 목사 : 2019년 4월 4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 다. 신정옥 간사 : 2019년 4월 4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 ③ 2차 접수된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하다.
- ④ 3차 자료(2015~2016년)를 목회대학원에 요청하기로 하다.
- ⑤ 김정호 목사 출석을 대신한 보고 자료를 제출받다.
- ⑥ 전화록 채택 후, 차기 회의(제4차)는 2019년 4월 4일(목)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 4) 제4차 위원회의

- ☞ 일 시 : 2019년 4월 4일(목) 오전 11시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하귀호 목사, 이충선 목사, 신정옥 간사가 본 위원회 앞으로 출석하였으므로 한 사람씩 대면 질의 조사하기로 하다.
  - 가. 하귀호 목사에 대한 질의 조사
 

위원장 김춘식 목사는 당시 상임이사 하귀호 목사가 2015년 3월 13일 ~ 2016년 2월 18일까지 총회 목회대학원에 재직했는가를 질문했을 때 출석한 하귀호 목사는 “예”라고 답변하였다.

    - a. 지난 102회기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김희태, 서기 김정호)가 질의하고자 했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처리위원회 출석통보의 건”에 기재된 15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한 바, 답변하기를 지난 회기 조사처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질의 요청했던 내용들은 이미 총회 감사를 받았던 사안들이라고 답변하였고, 다만 102회기 조사처리위원회들이 들추어 볼 때 과다지출한 부분이나, 지출 범위를 넘은 사안들도 몇 가지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부정 지출한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총회 목회대학원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 짧은 기간 증책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의 소명을 진술하였다.
  - 나. 이충선 목사에 대한 질의 조사
 

위원장 김춘식 목사는 이충선 목사에 대해 “총회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시무하셨지요?”라고 질문한 바, 이충선 목사는 “예”라고 답변하였다.

    - a. 지난 회기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김희태, 서기 김정호)가 질의하고자 했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처리위원회 출석통보의 건”에 기재된 15가지 질의내용 중 2번째 질의 내용(2014년 2월 13일에 이충선 원장 은퇴위로금 10,000,000원 지출)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바, 총회 목회대학원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기를 오랫동안 수고하신 이충선 원장에 대해 최소한 예우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본인은 그 돈을 다 받



을 수가 없고 장학금으로 5,000,000원을 목회대학원에 기부하고 나머지만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 b. 목회대학원 제70회기 여름학기 중, 총신대학교 전 총장 박영희 목사에게 특별 강사로 200만원(항공료 포함)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바, 박영희 전 총장은 재임시 목회대학원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꼭 한 번 강사로 모시려고 했던 차 연락이 되어 미국에 계신 박 총장을 강사로 모시는 가운데 비행기 왕복표와 강사비를 현 총장 예우에 맞추어 드렸다고 답변하였다.
- c. 여자 목회자를 목회대학원에 모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바, 처음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시무했을 때는 본교단 목회자 출신 학생들이 차고 넘쳤으나 어느 시점이 지나고 보니 학생수는 점점 떨어지고 차선책으로 본교단이 아닌 타교단 목회자들도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가 이것마저도 신입생 등록에 한계상황이 오자 목회대학원을 존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자 목회자들을 신입생으로 모집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 d.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한 바, 본인은 언제든 목회대학원이 필요로 할 때 자원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는 계속 존속되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학교 운영도 폭을 좀 넓혀 많은 분들에게 개혁주의 사상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학교 운영에 있어 재정이 부족하다면 발 벗고 나서서 교단 중진들이나 졸업생들에게 학교 살리는 차원에서 스폰서 역할도 감당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신정옥 간사에 대한 질의 조사

위원장 김춘식 목사가 신정옥 간사에게 오랫동안 총회 목회대학원 간사로 근무하신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였다.

- a. 목회대학원 간사로서 재정에 관여하여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모든 지출에 대한 사항은 연도별 재정보고서에 나와 있으며, 자신은 역대 원장들과 운영위원들의 지시대로 집행했을 뿐 자신의 의사대로 재정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b. 질문 :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요?  
답변 : 예 있었습니다.  
질문 : 왜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셨는지요?  
답변 : 목회대학원 상임이사 하귀호 목사로부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다는 구두 확인으로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소송 취하 후 지금까지 하귀호 목사는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c. 10년 넘게 목회대학원 간사로 수고하셨는데 노동청이 제시한 퇴직금은 얼마였는가 질문한 바, 대략 1,740만원이었다고 답변하였다.  
기도 후 세 분 출석자에게 공무 여비를 지급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② 차기 모임(제5차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의)을 결정하다.

일시 : 2019년 5월 9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 ③ 4차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한 후 빠른 시일 내로 담당자 전성민 과장 편으로 메일 송달하기로 하고 차기 모임에서 최종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다.

## 5) 제5차 위원회의

㉮ 일 시 : 2019. 5. 9.(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정경섭 목사가 전회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② 차기 회의를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1시에 갖기로 하다.
- ③ 최종 출석 요구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기로 하다.
  - 가. 하귀호 목사(전 목회대학원 상임이사)
  - 나. 김정호 목사(현 목회대학원 교무처장)
  - 다. 일시는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1시 총회회관으로 하다.

## 6) 제6차 위원회의

㉮ 일 시 :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최종 총회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다.
- ② 차기 모임은 2019년 7월 5일(금)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여서 위원장과 서기가 작성한 “총회보고서”를 최종 조율하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여 총회 기획행정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 ③ 신정옥 간사의 퇴직금 문제는 모인 자리에서 하귀호 목사와 전화 통화하였는데, 본인이 목회대학원에 근무할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위 본인(하귀호 목사)은 1년 가량 근무하다가 도중에 사임하였고, 신정옥 간사는 그 후 2016년 11월 3일 목회대학원 조사처리위원회가 가동되었으며, 새로 선정된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와 신정옥 간사는 2016년 11월 3일부터~2017년 2월 24일까지 14개월 동안 함께 인수인계를 위한 사역을 하였을 뿐인데, 하귀호 목사는 무슨 근거로 신정옥 간사가 2년간 김정호 목사와 함께 4학기 목회대학원 간사로 일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고, 신정옥 간사는 본인이 받지 못한 퇴직금 문제를 노동청에 제소하자 어떤 조건인지는 몰라도 하귀호 목사가 개입하여 소송 취하를 종용해 놓고 그 처리를 목회대학원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조사처리위원회에 당부한 일은 명분이 없다고 사료된다.

## 7) 제7차 위원회의

㉮ 일 시 : 2019. 7. 5(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록을 낭독한 후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 ② 제104회 총회 보고서에 올릴 내용은 제7차 회의 결의사항과 함께 정리를 하되, 혹 수정할 부분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인쇄 전에 위원들에게 알려 공지하도록 한다.
- ③ 작성한 제104회기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 “총회보고서”를 늦어도 7월 말일까지는 담당자 전성민 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 최종 보고

### 1. 제102회 총회 수임사항

-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서기 김정호 목사가 보고한 총회목회대학원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제101회, 제102회 총회에서 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에 목회대학원의 불토명한 재정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도록 맡긴 것과 달리 목회대학원 원장, 이사회 구성, 규칙개정 등 운영에 관하여만 청원한 바, 이는 총회 결의한 내용과 다르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목회대학원 운영에 관여해 왔으므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다.
- 2) 목회대학원은 존속시키되, 운영 및 조사처리 위원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 2. 처리 내용

#### 1) 총회목회대학원 경과보고

총회목회대학원은 1976년 제61회 총회 결의에 의해 설치됐다. 1977년 여름학기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40년 역사를 지닌 목회자 재교육기관이다. 설치 당시,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목회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총회 결의는 시기적절하고 미래지향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설치 후, 40년이 지나는 동안 목회대학원 운영과 지원에 총회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왔다.

그러는 사이, 2014년 2월 13일 당시 목회대학원 졸업생 대표 겸 원우회장이 제12대 원장 하귀호 목사 명의의 졸업장 수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이 졸업장을 거부한 이유는 ① 11대 목회대학원 원장을 학기 중에 해임한 점, ② 제12대 목회대학원 원장이 총회 4대 비리 가운데서 총회 아이티구호현금 횡령사건 비리에 연루되어 총회와 민사소송 중에 있다는 점, ③ GMS 이사장 재임 시, 이사장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이사장 김희태 목사)는 2016년 3월 23일 목회대학원 조사처리 5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파악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처리위원회는 목회대학원 원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그나마 조사처리위원회가 목회대학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필요한 일부 서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목회대학원 운영위원들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조직한 조사처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물음으로써 총회결의를 무시하는 반총회적인 처사를 보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서 조직한 조사처리위원회는 총회목회대학원이 당초 설립목적인 교단 목회자들의 재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타 교단 목회자들이 본 교단으로 유입되는 통로(헌법 정치 15장 13조)로 유용되었고, 심지어 여자 목사까지 학생으로 모집하고는 본 교단 총회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중 일부 여자 목사들은 총회목회대학원이 수여하는 학위증으로 본 교단이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도용하는 상황까지 발생시켰다.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서 조직한 조사처리위원회는 목회대학원이 본 교단의 헌법과 결의, 급변하는 목회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설치 운영된 목회대학원의 설치 운영 정신에 상반된 운영으로 목회자 재교육이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을 양성하는 역할로 전락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101회 총회에 보고하며 『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특별조사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1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제101회 총회는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회목회대학원의 전반을 살피도록 허락했다.

제101회 총회 결의에 의해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 전권위원회가 조직되어 2년간 2012년부터 2016년까지(5년간)의 회계장부를 조사했으나 조사에 응해야 할 분들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제103회 총회 결의에 의해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가 다시 조직되어 2011년~2016년까지의 회계장부 조사와 목회대학원 정관에 규정된 운영위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여자 목사 교육을 허락한 법적 근거와 신학적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했다.

## 2) 운영 및 조사처리 진행보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하귀호 목사, 이충선 목사, 신정옥 간사가 2019년 4월 4일(목)에 출석하였으므로 한 사람씩 대면 질의 조사를 실시했다.

- ① 하귀호 목사에 대한 질의 조사에서 지난 102회기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위원장 김희태, 서기 김정호)가 질의하고자 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던 15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한 바, 답변하기를 이미 매 회기마다 총회 감사를 받았던 사안들이라고 답변했고, 다만 102회기 조사처리위원들이 들추어 볼 때 과다 지출한 부분이나, 지출 범위를 넘은 사안들도 몇 가지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부정 지출한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총회목회대학원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 짧은 기간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의 소명을 진술하였다.
- ② 이충선 목사에 대한 질의조사에서 지난 102회기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위원장 김희태, 서기 김정호)가 질의하고자 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던 15가지 질의 내용 중 2번째 질의 내용(2014년 2월 13일에 이충선 원장 은퇴위로금 1,000만원 지출)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바, 총회 목회대학원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기를 오랫동안 수고하고 은퇴하는 이충선 원장에 대해 최소한 예우로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본인은 그 돈을 다 받을 수가 없고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목회대학원에 기부하고 나머지만 받았다고 답변했다.  
총회목회대학원 제70회기 여름학기 중, 충신대학교 전 총장 박영희 목사에게 특별강사로 200만원(항공료 포함)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바, 박영희 전 총장은 재임시 목회대학원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꼭 한 번 강사로 모시려고 했던 차 연락이 되어 미국에 계신 박 총장을 강사로 모시는 가운데 비행기 왕복표와 강사비를 현 총장 예우에 맞추어 드렸다고 답변했고, 여자 목회자를 목회대학원에 모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바, 처음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시무했을 때는 본교단 목회자 출신 학생들이 차고 넘쳤으나 어느 시점이 지나고 보니 학생수는 점점 떨어지고 차선책으로 본교단이 아닌 타교단 목회자들도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가 이것마저도 신입생 등록에 한계상황이 오자 목회대학원을 존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자 목회자들을 신입생으로 모집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 ③ 신정옥 간사에 대한 질의조사에서 모든 지출에 대한 사항은 연도별 재정보고서에 나와 있으며, 자신은 역대 원장들과 운영위원들의 지시대로 집행했을 뿐 자신의 의사대로 재정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위원들 앞에서 밝혔고, 퇴직 후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하귀호 목사로부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다는 구두 확인으로 소송을 취하였으나, 소송 취하 후 지금까지 하귀호 목사는 자신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 3) 최종 결론

- ① 목회대학원 조사처리



우선 회계장부 조사 범위를 벗어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 이중 분산 장부, ㉡ 회의비 과다 지출, ㉢ 교통비 이중 지출, ㉣ 장학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원장 교통비(택시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을 발견했고, 총회목회대학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분의 축의금을 지출한 것 등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만 과다 지출한 부분이나, 지출 범위를 넘은 사안들도 몇 가지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부정 지출한 것은 없다고 답변하기에 더 이상 조사할 자료가 없고,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이 매 회기마다 총회 감사를 받았던 사안들이라고 답변한 상황이다.

## ② 목회대학원 운영

목회대학원 정관에 규정된 운영위원은 11명(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재단이사장, 총장, 원장, 목회대학원 총동창회장, 운영이사 3인, 재단이사 3인)이다. 그런데 본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가 2011년~2016년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특정 정치 세력들로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한 강사들을 세우고 있었다. 이는 목회자재교육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을 양성하는 도구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자 목사 모집과 학위 수여를 결정한 인사와 목회학석사논문을 지도한 자 모두, 목회대학원 운영위원들과 일부 총신대 교수들이었다. 1977년 제61회 총회는 교단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 총회 목회대학원을 설치하는 결의를 하고 그 교육을 총신대학교에 맡겼다. 그러나 김영우 전총장과 재단이사들이 전원 해임되고, 관선이사들이 선임되기까지의 현실은 총회의 결의와 지시를 계속해서 총신대학교가 따르지 않았으며, 총회 목회대학원 계절학기 교육을 위해 총신대학교에 장소사용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무응답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위원장 김희태 목사가 시무하는 동광교회에서 총회목회대학원 계절학기(제79회 겨울학기-2017년 1월 2일~13일와 제80회 여름학기-2017년 7월 3일~14일, 제81회 겨울학기-2018년 1월 8일~19일, 제82회 여름학기-7월 9일~20일)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현재 제103회 총회 이후 제101회 총회 결의에 의해 직전총회장 전계현 목사가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을 맡아 제83회 겨울학기(2019년 1월 15일~18일)를 총신대학교 종합관(사당 캠퍼스)에서 진행하였고, 2019년 2월 13일 총신대학교 제2종합관(사당 캠퍼스)에서 진행하였고, 2019년 2월 13일 총신대학교 제2종합관 카펠라홀에서 제40회 졸업생 35명의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현재 목회대학원은 재학생이 10명 안팎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최종 결론

- 1) 총회 목회대학원은 지금까지 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존속하는 것이 총회에 유익된다고 판단됩니다.
- 2) 학교 운영은 지금까지 본 교단 총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해 왔던 바 이 문제도 목회대학원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3) 다만 수강 장소로는 이전처럼 총신대학교에서 실행함이 가한 줄 압니다.
- 4) 총회 목회대학원 학사 행정은 현재 실무자에게 맡겨 학사 관리를 하는 것이 앞으로 학생들 모집이나,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본 위원회 조사처리 보고를 드립니다.